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환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02 ISSUE

보건의료기사의 날 협회 정책현안

04 NEWS

홈페이지 회원 참여게시판 오픈

06 NEWS

전문임상병리사 소식

08 EDUCATION

하반기 오프라인 보수교육 안내

임상병리사의

심장초음파 검사업무에 대한 의견서



1. 심장초음파 검사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등)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을 보면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기생충학, 혈액학, 혈청학, 법의학, 약화학, 세포병리학,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가검물등의 채취 및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고 되어 있다.

• 협회는 2018년 보건복지부 업무범위 의견해석(2018-284)을 통해 '의사가 임상병리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공간에서(입회)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의사의 지도는 임상병리사와 1:1로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2. 심장초음파검사가 임상병리사가 적합한 이유

1)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할 때는 심장주기를 알기 위해 심전도가 동시에 기록되어야 함 그 이유는 심전도상의 심장수축기와 이완기를 관찰하면서 계속을 해야하고 부정맥이나 비특이적 심전도를 가진 환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 시 필요한 측정값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심장초음파검사 중 심전도파형의 이상이 발견되면 일반 심전도, 24시간심전도등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환자의 임상적 증상 등을 고려하여 추가조치를 하는 등 심전도와 심초음파검사는 '전기현상'과 '초음파'라는 수단의 차이일 뿐 심장주기에 따른 심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심장기능검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이다.

심장초음파검사는 단순 해부학적 구조나 형태만 검사하는 것이 아닌 심전도상의 심장의 주기에 맞게 심기능, 혈액학적 기능을 평가하는 생리학적 기능검사로써 엄연한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이다.
또한 심전도검사와 심장초음파검사의 공통점에 근거하여 영상의학소속이 아닌 순환기(심장)내과나 생리학검사실에 소속되어 있다.

2) 전국 임상병리(학)과가 있는 약 40개 대학에서는 임상생리학 교과목 중에서 심전도학과 심장초음파학을 개설하여 강의 및 실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순환기계 교육 2000시간/학기 중 700시간/학기 심장초음파 이론과 실기 교육시행중 (30%)
(-) 방사선사의 경우 초음파교과목 중 일부만 구성되거나 없는 경우도 있음

3)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임상병리사 직무분석연구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 직무기술서에 분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임상생리학분야에 총 6문항씩 출제되고 있다.(심초음파 4개영역, 뇌혈류 2개영역)

(-) 방사선사경우 초음파영역 10개 세부영역 중 1개영역에서만 심혈관계초음파로 구성

4) 심장초음파 근무인력 현황

임상병리사 162명, 방사선사 33명, 간호사 약 180명 (2018년 3월 조사, 전국병원)

100% 간호사만 근무하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는 조영심초음파시 조영제 투여나, 경식도심초음파시 진정, 마취업무, 약물부하심초음파시 약물투여 및 환자 케어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3. 결론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의 업무범위 따라 심장초음파검사도 방사선사만의 업무라는 주장은 심장초음파검사를 일반적인 복부 등의 초음파와 동일시한 오류이며 정확한 생리학적 검사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법의 확대 해석이다.

현재 대학병원급 이상의 심장초음파검사실에서도 방사선사보다 훨씬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근무하는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장초음파검사가 심전도를 바탕으로 심장의 주기에 따른 기능 및 혈액학적 평가를 해야 하는 생리학적 기능검사이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으로 어떤 이유로도 검사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병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매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 영역의 진료보조행위의 확대는 이런 부족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행위라는 업무 범위 내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며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불거진 고소고발에 따른 병원업계의 혼란과 내년도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기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단계적 규제방안이나 검사에서의 업무의 한계를 정하는 등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나 반드시 법적 테두리안에서의 해석이 필요할 것이며 검사 업무는 전문 의료기사영역에 맡겨두고 간호사는 간호 고유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2019년 보건의료기사의 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연안



1.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

2009년도의 신종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2014년도의 메를라 바이러스, 2015년도의 MERS, 그리고 현재는 중증급성호흡소관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VRE, CPE 등의 다제내성균의 출현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병상 규모에 비해 해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 1명에도 포함될 수 없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후속조치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병관리조사 인력지원이나 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감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빠져되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용성 있는 감염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에 임상병리사의 인력 포칭에 대한 근거 마련에 법안적 검토를 제안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되고 있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감염관리는 임상병리사가 감시배양영역을 통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리배양하고 내성 및 서식처의 특성을 기반으로 역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용의 상승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감염병관리료를 지급하는 인력근거인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의 인력도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감염관리료에 경합과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상병리사 인력 포칭을 허용하였지만(보건복지부 공문 근거)이 부분에 대해 현 상황은 사문 회되고 편향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2년도 중앙공공을 통하여 질병정책과에서 본 협회를 전담부 단위로 인정하였고, 향후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 협회를 전담부단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9.1. 감염예방관리료(보건복지부고시 2016-152호) 산정에서 제외된다.

감염관리분야에서 임상병리사가 필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감염관리는 역사적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업무로부터 출발
- ▶ 감염관리감사는 임상미생물감사의 기술적으로 다른 검사 분야

효율적인 감염관리는 감사를 통하여 감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원인체를 찾아내는 감시감시(세균배양감사, 바이러스유전자감사, 항원배양감사, 무균배양감사)는 임상병리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감시감사가 없는 감염관리 대책은 한계가 있다. 이에 임상병리사의 인력 및 감시배양의 감사에 대한 인정을 간 호사와 동등하게 적용하여 감염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관과 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에 임상병리사 인력배치의 확대는 중증합병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감염관리 인력이 적은 중소병원이나 말로 임상병리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시급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수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시행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인성적인 감염관리실 운영이 이루어지기때 적절한 수준이라 사료된다.

2. 검사 건수 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전담감사의학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검사과정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첨단 장비 및 분석 장비가 도입되면서 모두가 자동화, 시스템화되어 감사가 한층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직무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상병리감사실은 국민의 건강관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기본이 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주는 의료기관의 일부분야이다. 의료기관 대외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서 검사 결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병리감사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병리감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연관된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질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의 각 감사 항목별 unit value를 측정하여 우리나라 감사실의 상황에 적합한 unit value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사 건수에 맞는 임상병리사 수의 적정 규모를 산정에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임상병리감사실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임상병리감사실의 직업 및 생산성 및 자동화 등을 파악하고 병원별, 부서별, workload 및 생산성을 평가한 후 이를 분석하여 국내 임상병리감사실의 workload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효율을 비교하여 임상병리감사실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이 루고자 한다.



- CHEMISTRY DxC 880L, Dx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I 800
- HEMATOLOGY DH-800/LH1500 Vertical System / LH-780/LH-750
- SERUM PROTEIN IMAGE 800
- HEMOSTASIS ACL-TOP / TOP-500 CTS
- ACI ELITE PRO, ACI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MYNETICS Falciparum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산동 330번지
TEL : 02-229-6411 / 080-02-7171 F : 02-229-6566

중앙회 소식

협회 홈페이지
회원 참여시간 오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회원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참여계시판을 지난 10월 21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협회는 중요한 시간이 있을 때,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 날 게시판 개설과 함께 최근 특정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양성초음파 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시판을 개설했다. 교육 현장, 검사실 현장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임상병리사가 성장할수있도록 분야의 최적 인력이라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중앙회 긴급한 공보부재정은 '회원의 권익향상'과 '업무수요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참여계시판은 모든 회원이 글을 쓰고 이에 대해 다른 회원들이 댓글 형태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회원으로 댓글 참여이 소통장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19.10.01 ~ 10.31)

▶ 10월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타임 서클호텔에서 협회중앙사 간담회 를 진행하였다. 지멘스, 헬스니어스, 시젠의료재단 등 협회 주요 협력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제58회 종합학술대회 홍보와 함께 최근 임상병리분야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10월 10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4차 상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송 무부, 재무부, 학술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공보부 업무에 대해 보고, 질의 가 이루어졌고, 임원, 테크, 상기포로, 대만 대표단과의 회의의의 발표, 결정 되었다.

▶ 10월 11일: 서울 서초구에서 민원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심 사유장르도, 투고시스템 정비, IRB 관련 이슈, 영문판출시 저널명 공모 등 이 논의되었다.

▶ 10월 30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재무부 회의가 진행되었다.

▶ 10월 31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차기 학술대회 PCO(국제회의 진 문용언제) 및발에 대한 사항설명회 진행 및 협회차, 직장을 위한 회의가 진 행되었다.

중앙회 소식

제4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탁구대회 성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코리아탁구체육관에서 제4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임상병리사 회원들과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자 가족, 동료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앙회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회원들간의 유대감을 도모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탁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성되었고 개인전에는 숙련, 비숙련으로 나뉘어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의 회원들이 선수로 출전했고 단체전에는 서울사회, 인천사회, 경기도회, 대구사회, 강원도회, 전남회, 대한척척사사, 철예원, 신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총 11개 팀이 출전했다. 대진이 거듭될수록 선수 실력을 갖춘 회원들의 활약으로 치열하게 주고받은 경기가 이어졌다. 협회는 김법과 이은영교 등 간식과 탁구용품 및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19.10.01 ~ 2019.10.31)

▶ 10월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타임 서클호텔에서 열린 제9차 의기 총장기회에 참석, 11월 15일 열리는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점검함.

▶ 10월 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마 선동학회 총장기회 워크숍 참석, 워크숍 장란 및 학회 회원들에게 축사.

▶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병리사학회 초점학술대회 워크숍 참석, 교육 수료자에게 축사.

▶ 10월 12일: 서울 용문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서울사회 제1회 학술제에 참석, 학술제 장란 및 개회식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축사 전달.

▶ 10월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19년 회장단, 생리기능검사인 기초소염제, 면역학의 진행, 상정초음파검사 시행체에 대한 일부 단 체의 문제 제기 및 기사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 상정초음파에 있어 임상병리사가 적합한 인력이라는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방침을 정함.

▶ 10월 19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코리아탁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4회 협회장배 탁구대회에 참석, 대회 장란 및 축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격 려, 대회 발명에 수상자들에게 대한 시상을 진행함.

▶ 10월 22일: 대전 중구 회진국에서 열린 대전사회 임원 및 실장 간담 회에 참석.

사회소식

제4회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의 학술대회 개최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지난 10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호텔 한라(컨벤션 타워 3층)에서 개최된 '2019년, 우리 같이'란 슬 로건으로 제4회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개최, 마무리 하였다. 학술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20명과 회원 950여명이 참 석하였다. 지난번까지 6회가 걸쳐 진행되었던 중추소회의원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한 층을 더 나아가 전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 제와 그에 맞는 강의와 구연 발표를 준비하였다.

그날의 강연에는 예방의학 및 주위사건(황유진, 삼성서울병원), 생화학·생물 력 예방교육(안은 임상의 변화)(김연희, 이원의료재단), 폐활량 검사(김진희, 은평성병원), 호흡기 및 요양사(서경아, 안원병원), 인공관능의료(류현), 장우계(도들라) 및 최신 검사법 소개(이진동, 서울성모병원), Cx-AB, Rhd 변이형, 키메라, 조력, 상정초음파(김민, ASCP)현황과 지역특색(조성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 대학)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 였고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진과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강연 내용 에 참석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제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협회체를 준비한 중추소회의 원 위원회와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4회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학 술제'는 새로운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 려 할 것이며, 오늘 준비된 여러 강의에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시길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 보건교육 실시

명혜기자: 김미영

경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안환)는 지난 10월 12일에 상정초음파원에서 보건교육 을 실시하였다. 안환 회장은 "보건교육은 그동안 주로 마산대학교 강의를 이용했는 데 상정초음파원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어 한층 높은 것 같다. 그리고 경남도회가 발 전을 거듭하여 내실 있는 재정관리로 오랜 숙원사업인 도회 사무실을 구입하게 되었

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첫 번째 연제는 상정초음파원 김은경 강사의 '상정초음파 기초 마스터'란 주제로 상정초음파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관부처와 상정초음파 교육과 장을 알려 주고, 다수의 중앙연구자를 초청하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회원 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연제는 상정초음파원 이은교 강사의 '의상검사 결과 시체로 재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로 검사 결과 불포시 원인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회원들의 호응 을 받았다. 마지막 연제로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회 강사는 '장사상에서의 활 역 검체 처리과정'으로 혈액 검체처리과정의 CLSI 기이(드러인 GP44-4)에 관 한 수순 중요성을 하였고, 마지막 강의까지 강사진 등 1만 명이 넘는 회원 들의 참석과 화와 집중력을 보이기에 위해 팜 키즈를 내어 멋진 회원에게 소정 의 상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 성료

충청남도(회장 유필상)는 지난 9월 28일 중부 컨벤션에 위치한 천안대학교에서 제2차 보수교육을 194명의 회원이 동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



유필상 회장은 "전대는 국경선을 초월 하며 문화와 경제가 융합을 받는 초경 정보 시대의 기술과 이런 보수교육이 정보 습득의 기회가 될 바란다"며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어떤 행사도 진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결집된 힘이 있을 때만 가 능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 고(한국국수재단 김연희), ▶폐기되는 경시의 오류와 해결방안 그리고 중 려서(대학교병원 이인희), ▶부정맥 질환의 이해(안원병원 강은숙), ▶점진 및 간사(양은교)로 구성되었다.

유필상 회장은 "스스로 학습을 하고 부화한다면 병리사가 될 수 있지만, 누 군가에게 깨어진다면 그것은 깨어 프리가 될 뿐"이라며 "회원과 함께 노 려야 있을 때 잊지 않게 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항상 자신감을 기증 것을 당부했다.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 2019년 제2차 보수교육 성료

대구시회는(회장 유충범)는 지난 9월 28일 대구 영남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제2차 보수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2차 보수교육에는 사전등록으로 총 380여 회원이, 한강동으로 10 여명이 등록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교육에 참가하였다. 올해부터 더욱 강화 된 교육 이수시간 적용기준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즈드 학습의 진화발전 방 식에는 지난 1차 보수교육을 통해 익숙해진 회원들의 협조로 집중하고 지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

대구시회에서는 회원들에게 귀중한 정보전달과 소통을 위해 준비했던 카 카오프러스 채널과 문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빠른 응대로 회원들에게 편 의를 제공하였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실질적 임 무 수행과 전문성 발휘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대구사회 자체 설문조사를 통 해 참여자 근무 환경 분석, 회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던 것을 토대로 강의 분야 및 강사를 선정하여 양질의 교육 제공을 도모하였다. 대구시회는 업 로드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Challenge
to the best!**

정규직 전환율

- ✓ 2017년 100%
- ✓ 2018년 90%
- ✓ 2019년 90%

채용문의

02.2218.9022

**(재)씨젠의료재단
2020년도 상반기
우수인재 공개채용이
2020년 1월 진행됩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이란 경영목표 아래 임상진료 및 고품질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입니다.
(재)씨젠의료재단과 함께 최고를 향해 도전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우수인재를 2020년 1월 중에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